

## 韓國書誌事業會

### 一學術文獻整理(書誌目錄)作業推進一

#### 1) 序

우리 나라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分野에서 近代化를 위한 非常한 努力이 傾注되고 있다. 特別히 各 部門에 걸쳐 多角的이고 綜合的인 研究가 試圖되고 있음은 매우 多幸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研究와 改善이 되지 못하여 우리의 意慾과 慾望을 挫折시키고 있는 點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일들이 發見된다면 이것이 곧은 正되도록 措置함으로써 보다 빠른 發展의 길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近代化 作業을 阻害하는 要素중에는 傳統的인 社會의 構造의 缺陷이 큰 것이지만은 思考方式의 改善, 그리고 모든 分野에 있어서 基礎的인 作業이 根本的으로 研究 또는 對策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더 큰 要因이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經濟成長을 위하여 基幹産業이 育成되고 生産工場이 到處에 建設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技術과 理論이 導入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過去의 낡은 方式을 脫皮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開發하고 良質의 商品이 低廉하게 生産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目的을 위하여는 보다 더 向上된 技術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技術의 向上과 開發은 그 技術의 原理와 工場을 稼動할 줄 아는 理論을 먼저 正確하게 파악 터득하여야 한다. 한 國家 혹은 社會에 있어서 學術文化의 發達は 그 社會의 진보와 발전을 先導해가는 原動力인 것이며, 모든 分野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人間은 思考의 능력으로부터 文化를 生産 發展시키며 思考(研究)의 所産으로 社會를 形成시켜 가기 때문이다. 社會가 學術文化를 바탕으로 形成되고 發展되어 가고 있는 만큼 學問이 發達할 수 있는 所地와 與件의 造成은 第一次的인 作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生産된 學問은 有効하게 活用되어야 하고 보다 더 向上된 文化의 創造를 爲해 끊임 없이 調査 研究되어야 한다. 따라서 學者들의 研究活動을 위해서 必要한 學術文獻資料들을 손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組織하고 體系化하는 일은 文化發展에 있어 마치 橋梁工事와 같이 중요한 事業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날 世界에는 年間 約 5萬餘種의 學術誌가 6千餘萬 페이지라는 엄청난 量으로 刊行되고 있으며 韓國에는 年間 約 230餘種의 學術誌가 1萬2百 여종의 論文을 生産하고 있다. 이러한 文獻資料의 洪水속에서 學者나 技術者가 自己의 專門分野에 對한 研究를 위해서 새로

운 資料들을 빠짐없이 通覽하고 利用하기란 대단히 힘든 것이다. 따라서 高度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科學과 文化의 進歩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學術文獻資料의 整理와 文獻情報의 보다 더 効果的인 提供과 迅速한 入受가 切實하게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最近 美國의 學者 및 技術者들은 그들의 研究活動에 있어서 資料蒐集(情報獲得)에 50.9% 資料整理에 9.3% 계획에 7.7% 研究 및 실험에 32.1%를 消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書誌資料가 完備되고 高度의 能力과 技術을 所有한 圖書館人의 組織的인 奉仕에도 불구하고 先進 美國에서도 研究期間의 約 60%를 資料를 蒐集하는데 消費한다고 하는데 書誌整理作業이 전혀 荒蕪地인 우리 나라의 경우 學術研究에 있어 學者들이 당하는 애로는 나침반 없는 航海와 같은 것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實情이 放置된 채로 새로운 文化와 社會發達에 밑거름이 될 研究物을 期待한 다든지 近代化의 지름 길을 摸索한다는 것은 至極히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민족의 智慧의 精髓이며 얼을 담은 著書들이 散逸되어 整理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民族의 참 숨결과 崇高한 叡智를 바로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더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우리 나라가 一時 國權을 빼앗기고 오직 獨立 爭取를 위한 鬭爭에 나섰든 탓으로 해서 固有한 文化를 研究 啓蒙하는 일을 疏忽했든 것이 事實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在來의 文化가 오히려 外國人의 손에 依하여 그 研究의 主權이 넘어간 形便인 現實을 깊이 반성해야 할것은 물론이다.

今般 韓國圖書館協會 內에 韓國書誌事業會를 設置하여 書誌統整事業을 具體化하고 基礎作業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 書誌事業會에서는 우리 나라의 學術文化와 技術 向上의 研究 發展을 위해서 各種資料를 調査 評價하여 體系的으로 組織하고 이를 綜合하는 일과 더 나아가서는 自動化함으로써 近代化에 寄與하고자 하고 있다. 研究하는데 있어서 學者나 技術者들이 大部分의 時間을 資料蒐集에 消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前述한 바이지만 學者들의 時間과 努力 또한 經費의 浪費는 엄청나게 큰 것이다. 물론 個人이나 國家의으로도 莫大한 浪費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現實은 學術振興의 不進과 더 나아가서는 逆行을 招來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圖書館人和 學者와 協同으로 이루어지는 이 書誌事業이 ① 資料를 蒐集하는데 所要되는 時間을 短縮시키고 ② 實驗과 研究하는데 더 많은 時間을 갖게 할 수 있으며 ③ 經費를 節約함으로써 近代化의 지름 길을 摸索하는 보다 더 빠른 國家 成長 計劃에 있어서 基礎的인 作業이라는 것이다.

國家가 國家發展에 必要한 보다 더 새롭고 效果的인 방안을 얻기 위해서 先進文化的 輸入이나 또는 研究實績을 要求하기 以前에 研究를 위한 與件의 造成이나 信念있는 政策과 積極的인 施行이 없이는 안되는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는 이에 대한 必要度나 認識이 부족한 탓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與件으로 해서 綜合的이고 體系의으로 이 書誌事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도서관 即, 國會圖書館,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韓國圖書館協會 등에서 部分的으로 書誌作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제 韓國書誌事業會의 發足과 더불어 圖書館人과 學界의 靚위있는 學者들이 協同하여 各種資料의 調査, 評價는 勿論 各分野의 主題別 및 綜合書目 등을 推進함으로써 不進한 學術振興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 넣고 하루 속히 우리의 後進性을 脫皮하고 보다 더 빠른 近代化의 課業에 積極 寄與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韓國學이나 韓國의 眞像이 外國사람들의 그릇된 影像에 依하여 함부로 論議되고 있는 때에 바로 참된 우리의 모습과 科學的인 韓國學을 體系의으로 研究할 수 있도록 書誌目錄을 만들어 國內外에 알리는 일은, 國家的인 事業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放置할 수 없는 時急한 課題라고 생각한다.

## 2. 目 的

國內에서 刊行된 各種資料를 主題別로 調査評價하고 書誌目錄을 作成하여 技術者, 研究者 및 모든 分野의 學者나 教育家에게 提供함으로써 研究期間을 短縮시킴은 勿論 研究를 하는데 있어서 資料蒐集에 所要되는 努力과 莫大한 經費를 節約케 함으로써 迅速하고 充實한 研究物이 生産되어 우리 나라의 學術振興과 技術向上에 功獻하고, 近代化 課業에 積極的으로 寄與하고자 한다.

## 3. 組 織

보다 더 效果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本 書誌事業會를 圖書館人과 學界의 權威 있는 學者들의 協同體로 構成하여 相互 積極 協力하는 組織을 갖는다. 即, 本 書誌事業會에는 企劃委員會 및 技術委員會와 人文科學委員會, 自然科學委員會, 社會科學委員會, 古文獻委員會 등 主題別 機能委員會를 設置하고 있다.

## 4. 事 業

本 書誌事業會에서는 다음의 事業을 推進함으로써 學者와 技術者들의 研究調査의 基本道具를 마련하고자 한다.

1. 韓國에서 刊行된 各種資料의 調査 및 評價
2. 韓國에서 刊行된 各種資料의 主題別 및 綜合書目的 編纂
3. 韓國에서 刊行된 學術雜誌의 索引 編纂
4. 韓國이 保有하고 있는 外國 刊行物 學術資料의 主題別 및 綜合書目的 編纂

5. 韓國學研究에 필요한 書目的 編纂
6. 資料複寫 斡旋
7. 書誌自動化의 普及 및 綜合
8. 國內外 관계기관과의 書誌的인 情報資料 및 技術交換
9. 書誌事業을 위한 要員의 養成
10. 其他 本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以上과 같은 事業중 主題別 書誌目錄을 編刊 하는 일과 특히 科學關係 文獻目錄이 作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 內外 學界가 보다 時急하게 要求하고 있는 것은 史料的 價値가 있는 資料로서 이 分野는 거의 原始的의으로 放任狀態에 있는 實情인 것이다.

따라서 現在 奎章閣 內的 古文書類들은 韓末의 政治經濟, 法律, 外交 등 國內外에 관계되는 文書의 原本 또는 그 抄本으로써 韓國 研究를 위하여 매우 貴重한 史料이면서도 방치된 상태로 있어서 이 貴重한 原資料를 신속히 정리하여 韓末文書解題目錄(大韓帝國 時代의 外交文書)을 編刊하여 學界의 研究에 이바지하고자 第一次年度인 1969年度의 事業으로 推進中에 있다.

## 5. 沿 革

1968年 6月 18日 第2次 圖協 專門委 分科委員長 會議에서 本 圖協內에 韓國書誌센터를 設置할 것을 論議하다.

8月 5日 第4次 圖協 專門委 分科委員長會議에서 同 書誌센터의 規程 草案을 檢討하여 修正 採擇하는 한편 “韓國書誌事業會”로 假稱하다.

9月 6日 本 協會 第3次 定例 理事會에서 同事業會 規程案을 審議 修正 採擇하고 韓國圖書館協會內에 “韓國書誌事業會”設置를 決議함으로써 同 書誌事業會가 發足되다.

9月 30日 美 에일 大學校에 在職中인 全 惠星 博士의 書誌目錄作成 自動化 方案에 對한 館界와 學界에서 의 깊은 關心과 要求에 따라, 第1次로 市立鍾路圖書館에서 館界 및 學界人士들이 合同하여 韓國 書誌目錄編纂 自動化推進에 關한 會議를 갖고, 同 書誌目錄自動化에 對한 業務를 本 書誌事業會 事業으로 採擇시키다.

10月 18日 同 書誌事業會 機構 構成 및 組織準備委員會를 갖고 會長, 副會長(2名), 顧問(若干名), 諮問委員(若干名) 및 6個委員會를 두는 構機를 마련하다.

12月 20日 第4次 圖協 定例 理事會에서 同 書誌事業會 規程中 未備點과 修正할 點等을 補完 改正하다. 1969年 3月 14日 同 書誌事業會 館界 25名, 學界 32名, 總 57名의 委員을 委囑하다.

3月 20日~4月 2日 各 委員會別로 一次 會議를 갖고 6個 委員會 委員長을 選出하다.

4月 7日 同 書誌事業會 第1次 委員長 會議를 열고 第1次 年度 事業으로 韓末文書整理 事業을 着手키로 하여 現在 進行中에 있다.